

# 강정호 친화력·실력...한방에 증명하다

## 강정호 홈런...그 이상의 의미는

낮가림 적어 동료에게 다가가 직접 대화  
팀선수들 즐겨하는 '졸탄 세리머니'까지  
파워·수비력 입증...부정적 시선 잠재워

시범경기 홈런 한방 친 것 가지고 호들갑을 떠는 것은 설레발일 수 있다. 별거 아니라고 넘기면 그만이지만 의미를 찾자면 결코 가볍지 않다. 피츠버그 강정호(28)가 4일(한국시간) 플로리다주 오트모스체인저스타디움에서 열린 토론토와 시범경기 첫 출장에서 첫 홈런을 터뜨렸다. 강정호의 '해적선 승선'이 순조롭게 이뤄지고 있다는 이정표 같은 홈런이라 가치가 남다르다. 강정호의 이번 홈런에는 홈런 이상의 큰 의미가 있다.

### ●피츠버그에 녹아들고 있다

강정호의 메이저리그 연착륙을 점치는 근거로 성격이 꼽힌다. 대외적으로 과묵하지만 낮가림이 별로 없다. 피츠버그에서도 팀 동료들에게 먼저 다가가고 있다는 후문이다. 통역이 따로 있지만 웬만하면 스스로 영어를 쓰려고 한다. 피츠버그 동료들은 이미 강정호가 가수 나훈이를 닮은 것까지 알고 있을 정도로 친밀감을 표시한다.

이런 강정호가 4일 홈런을 친 뒤, '졸탄 세리머니'를 보여줬다. 졸탄(Zoltan)은 미국의 B급영화에 등장하는 외계인이다. 이 외계인을 부를 때 양 손을 펴서 엄지손가락을 연결해 Z모양을 만드는데 이 영화를 클립하우스에서 우연히 본 피츠버그 선수들이 이를 따라하기 시작했다. '졸탄 세리머니'를 처음 선보인 선수는 포수 로드 바라하스다. 그 후 피츠버그 타자들은 2루타 이상의 장타를 치면 '졸탄 세리머니'를 하는데 강정호가 홈런 직후 턱아웃에 들어가며 이 제스처를 취한 것을 메이저리그 공식 홈페이지가 놓치지 않았다. 강정호는 이 세리



피츠버그 강정호(오른쪽)가 4일(한국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오트모스체인저스타디움에서 열린 토론토와 시범경기에서 1회 페드로 알바레스가 3점홈런을 치고 돌아오자 손뼉을 마주치며 축하해주고 있다. (데넬리안 플로리다 주) | AP뉴스

머니를 "그레고리 폴랑코한테 배웠다"고 답했다.

### ●밀어 친 홈런이 물고 은 임팩트

강정호의 홈런은 우중간 담장을 훌쩍 넘겼다. 타구가 그 방향으로 날아갔다는 것은 스윙타이밍이 약간은 늦었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그럼에도 강정호는 완벽한 타격 자세를 유지했고, 맞아나간 타구는 계속 번어나갔다. 다른 것을 다 떠나서 강정호의 코리안 파워가 피츠버그 전 선수단 앞에서 드러난 순간이었다.

일각에서는 스윙 시, 한쪽 발을 드는 강정호의 레그 킥 동작을 지적하며 몸쪽 지구에 취약할 수 있다는 분석을 했다. 그러나 강정호는 토론토 강속구투수 애런 산체스의 지구에 힘으로 붙어 압도했다.

### ●메이저리그에서도 감심장 입증

공격력 못지않은 포인트는 강정호가 과연 미국에서도 유격수로서 정착할 수 있느냐 여부였다. 단 1경기라 단정할 수 없으나 4일 토론토전을 통해 강정호는 '좌어도 주눅들지는 않는다'는 것을 입증했다. 넥센

에서 수비할 때와 다름없는 유연함과 여유를 보여줬다. 아직 피츠버그 주전 내야수들이 시범경기에 나서지 않아 단정할 수 없으나 내야 주전경쟁을 해볼만한 안정감을 보였다.

이미 2010년 광주아시아인게임을 통해 강정호의 배짱과 국제무대 적응력은 어느 정도 검증됐다. "한국에서의 홈런과 다를 것 없다. 긴장하지 않고 경기를 즐기려 했다"는 경기 직후 강정호의 소감에서 '이제 시작일 뿐'이라는 의연함마저 읽힌다.

김영준 기자 gatzby@donga.com 트위터 @matsri21



두산 장원준이 4일 전지훈련을 마치고 일본 미야자키에서 귀국하고 있다. 84억원이라는 거액 FA 선수가 됐지만 부담을 갖기보다 부담을 즐기면서 시즌을 보내겠다는 당찬 각오를 밝혔다.

## '투수 최고액 이적' 장원준 "부담감 피하지 않고 즐겨"

두산 캠프 성공적...절친후배 유희관 도움 많이 받아

"부담감을 피하지 않고 즐기겠습니다."

역대 투수 FA 최고액을 받고 두산으로 이적한 장원준(30)이 새 팀에서의 첫 스프링캠프를 성공적으로 마쳤다. 장원준은 4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하면서 "두산에서의 첫 캠프라 떠나기 전에는 조금 걱정했는데, 생각보다 적응이 빨라서 큰 어려움 없이 캠프를 마칠 수 있었다. 전체적으로 만족한다"는 소감을 밝혔다. 또 "처음에는 많이 어색할 줄 알았다. 그러나 코치님들과 동료들이 다들 '편안한 마음으로 하라'고 격려를 해주셔서 팀에 적응하는 데 어려움이 없었다"며 고마운 마음을 표현했다.

절친한 후배 유희관(29)의 도움도 많이 받았다. 유희관은 낮을 많이 가리고 말수가 적은 장원준이 어색함을 털고 팀에 자연스럽게 녹아들 수 있게 해준 최고의 조력자였다. 장원준은 "다들 모두 잘해주셨지만 캠프에서 특히 유희관과 붙어 다녔다"며 "예전부터 잘 알고 지내던 사이였고, 같은 왼손 투수이다 보니 잘 통하는 부분도 많다. 희관이가 적응에 많은 도움을 줬다"고 말했다. 물론 앞으로는 선발전에서 '좌완 에이스'라는 호칭을 놓고 겨뤄야 하는 사이이다. 그러나 다행히 둘은 '목표가 같은' 라이벌이다.

롯데 에이스 출신인 장원준의 두산 이적은 지난 스토브 리그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였다. 4년간 84억원이라는 거액을 받았으니 더 그랬다. 장원준은 "아무래도 큰 금액을 받고 왔으니 부담감이 있다. 그러나 그 부담감을 피하지 않고 즐기려고 한다"며 "기대에 보답할 수 있도록 해 동안 애쓸 것"이라고 했다. 올해 장원준의 목표도 무조건 팀 플레이어가 되는 것이다. 그는 "지난해 많았던 볼넷을 줄이고 싶어서 캠프 내내 제구력을 다듬는 데 힘썼다"며 "팀이 4강에 오르고 우승을 할 수 있도록 내가 내 역할을 해야 하는 게 먼저다. 팀이 잘 되면 개인성적도 저절로 따라간다"고 거를 강조했다.

인천국제공항 | 배영은 기자 yeb@donga.com 트위터 @goodgoer

### 'NC 야구장 마산종합운동장 부지에' 창원시의회 의결

창원시의회가 4일 NC 다이노스의 새 야구장을 마산종합운동장 부지에 짓기로 표결 끝에 의결했다. 이에 따라 곡절 끝에 NC의 새 야구장은 당초 계획됐던 경남 진해 육군대학 터에서 마산종합운동장으로 옮겨가 됐다. 아울러 창원시의회는 야구장 건립 행정비용 23억2700만원도 통과시켰다.

### 'SK 와이번스 PLAY With' 앱 출시

SK 와이번스가 'SK 와이번스 PLAY With(이하 PLAY With)' 앱을 4일 출시했다. SK 공식 어플리케이션인 'PLAY With' 앱은 Beacon 등 최신의 ICT 기술을 기반으로 행복한 야구경험을 제공하는 모바일 플랫폼으로 티켓에 매부터 경기장 입장, 야구 관람 및 이벤트 참여, 멤버십 서비스까지 모든 기능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새로운 멤버십 브랜드이다.

### LG 오키나와 스프링캠프 MVP 최승준 선정

LG가 4일 일본 오키나와에서 진행된 2차 스프링캠프의 최우수선수(MVP)로 최승준(사진)을 선택했다. LG 양상문 감독은 전지훈련을 마치고 최승준을 MVP로 선정하고 금일봉을 전달했다. 우수 야수는 김재율과 김용의가, 우수 투수로는 김선규와 윤지웅이 선정됐다. 양 감독은 "노력한 만큼 성과를 얻어 만족스럽다"며 "선수들 본인 스스로 알아서 훈련하는 시발점이 된 것 같다"고 호평했다.

편집 | 정용은 기자 sadzoo@donga.com 트위터@sadzoo

## 차우찬 5선발 경쟁 앞서...5연패 구상 끝났다

### ■삼성 전지훈련 결산

피가로·클로이드 25승 합작 기대  
류 감독 "올해도 톱타자는 나바로"  
경기수 늘어 선수 체력 보강 중점

"이제 시작이네. 여유 있는 시간은 다 지났다."

스프링캠프는 끝났다. 하루하루 피를 말리는 결전의 날들이 다가온다. '다넬딩 챔피언' 삼성이 스프링캠프를 모두 마치고 4일 김해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삼성 선수단은 3일 일본 오키나와 아카마구장에서 마지막 훈련을 마친 뒤 박수 다섯 번을 쳤다. 올해도 정규시즌과 한국시리즈에서 모두 우승해 통합 5년 연속 우승을 달성하는 의미다.

부임 첫 해부터 우승하면서 삼성의 4연패를 모두 지휘했던 류중일(52) 감독은 "기회라는 건 쉽게 오지 않는다. 당연히 우리 목표는 통합 5연패다"라며 "선수단과 프런트 모두 통합 5연패를 향해 올해도 톱풀 뭉쳐 노력하도록 하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 ●올 시즌 구상 이미 끝나...5선발 차우찬 우세

그 밑거름이 바로 스프링캠프다. 팜에서 진행된 1차 캠프는 물론 오키나와에서 치른 2차 캠프도 전체적으로 만족스러운 성과를 보였다. 류 감독은 "오키나와에서 비 때문에 훈련에 지장을 받은 날이 예년과 달리 거의 하루도 없었다. 비가 많이 오는 날은 휴식일이었다"며 "선수들이 그 때문에 힘들었을 수도 있지만, 감독 입장에서는 훈련을 내실 있게 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미 한 시즌의 대략적인 구상은 끝났다. 시범경기를 통해 보완할 부분만 점검하면 된다. 류 감독은 "최근 우리 팀은 계속 전력 투수가 있었다. 지난해에는 오승환이 빠진 대신 임창용이 돌아와 정말 큰 역할을 해줬다"며 "올해 FA로 나간 배영수와 권혁 대신 다른 선



차우찬 나바로

수가 그 역할을 해줘야 한다. 일단 5선발 경쟁에서는 차우찬이 조금 앞서있는 상황이다. 차우찬이 선발로 가면 볼넷 두 자리를 잘 메울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 ●새 용병투수 피가로·클로이드 기대해도 좋다

외국인선수들에 대한 기대감도 점점 올라가고 있다. 류 감독은 새 용병투수 알프레도 피가로와 타이러 클로이드에 대해 "두 투수가 올해 합작 25승 이상을 해줬으면 좋겠다. 캠프에서 던지는 걸 보니 피가로는 예상대로 강속구 투수이고, 클로이드는 제구가 좋아 기대가 된다"고 평가했다. 용병타자 아마이코 나바로도 여전히 믿을 만하다. 류 감독은 "올해도 톱타자는 나바로가 맡는다"고 일찌감치 공언했다.

올 시즌은 사상 처음으로 팀당 144경기 체제로 운영된다. 지난해보다 16경기가 늘어났다. 선수들 모두 캠프 내내 체력 보강에 힘썼다. 지난 4년간 우승해온 삼성도 앞으로 더 많은 승수를 따내야 다시 왕관을 쓸 수 있다. 류 감독은 "지난해 우리 팀은 78승으로 정규시즌 우승을 차지했다. 올해는 85승에서 90승 사이에서 1위가 결정될 것으로 본다"고 내다봤다.

삼성 선수단은 5일 하루 휴식한 뒤 6일 오후 1시 대구구장에서 간단한 훈련을 소화할 예정이다. 7일 포항구장에서 시작되는 두산과의 시범경기에서 앞서 6일 오후 미리 포항으로 이동한다.

배영은 기자 yeb@donga.com 트위터 @goodgoer

## 넥센 백업선수 성장 든든...플랜B·C 문제없다

### ■넥센 전지훈련 결산

윤석민·김지수 내야 멀티자원 '퐁부'  
외야수 강지광 폭발적인 성장세 '호뿔'  
'가장 발전된 선수' 4선발 문성현 '든든'

플랜B와 플랜C까지... 넥센의 괄목할만한 성장이 두드러진 오키나와 캠프였다.

넥센은 3일 LG전을 끝으로 오키나와 일정을 마무리했다. 오키나와 전적 3승3패. 아쉬움이 없지 않지만 넥센의 전력을 확인하는 좋은 경기였다. 오키나와에서 넥센은 변변한 연습구장조차 없었다. 타 구단의 경기장을 찾아 경기만 치르고 떠나는 힘든 일정 속에서도 선수들은 새 시즌을 기대게 하는 활약을 펼쳤다. 영점영 감독은 "항상 문제가 됐던 백업선수들이 크게 올라왔다. 팀이 전체적으로 안정되고 단단해졌다"고 만족감을 나타냈다.

### ●플랜이 다양해졌다

넥센은 작년까지 주전선수와 비주전 선수간의 격차가 컸다. 박병호와 강정호, 그리고 서건창이 지킨 내야는 물론이고, 이택근과 유한준의 풍부한 경험은 한국시리즈 준우승으로 이어졌다. 하지만 뒤를 받치는 백업선수들이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올 시즌은 지난해와 다르다. 올 시즌 강정호의 공백은 오히려 순기능을 가져왔다. 작년 1군에서 확실하게 경험을 쌓은 김하성은 윤석민과 함께 뜨거운 주전 경쟁을 펼치고 있다. 박병호가 3루 쇼케이스를 진행하면서 임병욱과 서동욱이 1루수에 나섰다. 윤석민도 1루 백업이 가능하다. 김지수는 유격수와 2루가 모두 가능한 멀티자원. 외야도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는 강지광과 안정된 수비의 문우람, 고종욱 등이 뒤를 받친다.

영 감독은 올 시즌 정상을 목표로 내걸 만큼 우승 의지가 강하다. 하지만 내년과 내후년을 보는 작업도 잊지 않았다. 다양한 시도로 플랜B와 플랜C까지 실험했다. 넥센은 이택근과



김지수 문성현

유한준이 FA를 앞두고 있고, 박병호가 포스팅시스템을 통해 해외진출을 노린다. 대체자원의 발굴이 시급했다. 선수들이 캠프를 통해 뚜렷한 성장을 보여주며 전망을 밝혔다.

### ●골격 갖춘 필승조와 선발진

넥센의 골격치러는 여전히 '약한 투수력'. 작년 가을야구에서 활약한 오재영은 고관절염 증상으로 5월 이후에나 복귀가 가능하다. 그러나 3-4선발을 맡은 한현희와 문성현이 캠프에서 좋은 공을 던졌다. 한현희는 지구, 슬라이더에 싱커와 체인지업을 추가하며 새 구종을 적극 시험했다. 문성현도 제구력을 다듬으며 캠프에서 '가장 발전된 선수'로 꼽힌다. 앤디 밴 헤켄이 견제하고, 라이언 피어밴드도 괜찮다.

필승조는 김택형-김정훈-조상우-손승락으로 꾸려졌다. 동산고 출신 좌완 김택형은 신인답지 않은 감심장으로 승부를 즐긴다. 김정훈은 제구를 다듬어야 하지만 서클체인업이 강점이다. 조상우와 손승락은 천천히 몸을 끌어올리고 있어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 여기에 김영민은 2일 한화전에서 152km의 바깥쪽 궤적 직구로 심전을 잡아내며 시즌을 기대했다. 베테랑 송신영도 부활투를 다짐한다. 손혁 투수코치는 "넥센에 들어와 보니 투수들이 생각보다 약하지 않다. 투수들이 갖고 있는 자신감 결여를 채워주고 도와주는 게 내 일이다"고 말했다.

오키나와(일본) | 박성준 기자 spark47@donga.com 트위터 @sangjun47

편집 | 정용은 기자 sadzoo@donga.com 트위터@sadzoo